

일 주 문



포교원 신도전문교육기관 실무위원급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2월 24~25일 태화선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신도전문교육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배삼봉 빈소 조문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2월 23일 타계한 불자 원로 코미디언 배삼봉 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불교환경연대 2010 정기총회  
상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은 2월 26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사업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광덕 스님 11주기 맞아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2월 25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급하 광덕대종사 1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는선우 열린법석  
강남포교원 원장 성열 스님은 3월 6일 우리는선우 열린법석에서 '업설은 물리법칙이 아니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선광 스님 불우이웃돕기  
대구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은 2월 11일 오후 대구 남구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2000명 분의 국수를 전달했다.



제1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실시  
박상필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5일까지 제1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연수기간은 3월 20일~10월 9일이다. (02)722-2206



참여불교재가연대 아이티구호 동참  
김동연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2월 26일 아이티구호기금 56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선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원보 공동대표가 2월 25일 제11대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산악인연합회 출범  
조계종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양춘동)가 2월 19일 공식출범했다. 산악인연합회에는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교육·문화 종단으로 이끈다

##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태허 스님 뜻이어 제2창종"

"개산조 태허 스님 선양 사업을 시작으로 관음종이 교육·문화 종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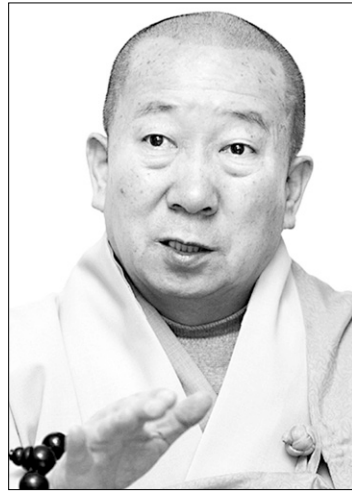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대한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서울 묘각사 주지·사진)는 2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이 밝혔다.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은 해방 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돕고, 한국전쟁 이후 종로 탑골공원에서 거리설법과 라디오 서울에서 법문하는 등 대중교화에 힘쓴 선지식이었다.

흥파 스님은 "올해 음력 8월 25일은 태허 스님 탄생 10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창종기념일을 전후해 유문집 발간과 기념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태허 스님의 유문집은 묘각사에 남겨진 스님의 유품 일고 8000여 매를 정리한 것으로, 관음종은 2년 전부터 유문집 발간을 준비해왔다. 기념학술 대회는 불교학자 10여 명에게 과제를 청탁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흥파 스님은 "유문집 발간과 기념학술대회 개최 후에도 지속적인 개산조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칭)태허사



상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종단이 추진하던 사업들도 계속 시행된다.

스님은 "관음종의 전통인 음력 10월 신구맞이 법회를 활성화해 지방 사찰과의 총무원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마다 외국인을 초청해 진행해 온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사업에 올해는 일본인 교사 30여 명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도 의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종단 정체성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흥파 스님은 "최근 관음종 불교성전 제8회 개정보판 1만부를 출간. 배우해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관음종 종지를 통해 종도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사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3월 22~24일에 열리는 제34차 주지연수회에서는 관음종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4년 전부터 묘각사에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열고 관음종도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스님들은 2년 과정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종도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제2의 창종을 한다는 각오로 대중행사에 치중하던 종단 사업기조를 교육·학술로 바꾸려 한다"면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음종은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보살 운동을 주창하는 종단으로 국내 720여 사찰과 해외 3개 사찰이 등록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 동화사, 장학회 발족 및 장학금 전달식

동화사 봉황장학회(회장 정혜)는 2월 25일 동화사 화엄당에서 장학회 발족 및 제1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학회는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7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황장학회 회장 정혜 스님은 "한국불교와 동화사를 이어지고 나아갈 젊은 인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장학회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봉황장학회는 선문 스님의 제의로 각계 스님들의 뜻이 더해져 발족했다.

봉황장학회는 기금을 적립해 매년 봄·가을 동화사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지구촌공생회, 아이티서 봉사활동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봉사단이 아이티 현지에서 지진참사 복구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회 봉사단(지회장 현철, 이하 봉사단) 소속 단원 5명은 2월 16~24일 아이티 고아원 '라비 핸드 미니스트리'를 방문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회 봉사단이 아이티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격려했다.

해 미화 3000달러 상당의 쌀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힘 보탤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3월 16일 의료진으로 구성된 2차 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 무비·세민 스님 명박



조계종 전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과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각각 1·2호로 중앙승가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25일 제28회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 2명을 비롯해 석사 7명, 문학사(학부) 62명에게 학위를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부산 범어사·양산 통도사 강주 등을 역임한 무비 스님은 승가대학원 초대 원장과 조계종 4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제2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세민 스님은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총무원 재무부장·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원 학술상 시상도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 총무원 중심으로 힘 모을 것

### 능해 스님 제5대 보우승가회 회장 취임

2월 27일 태고종 보우승가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한 능해 스님은 "구종 원력과 포교 애증심으로 종단발전과 사회역할을 다하는 보우승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우승가회는 2000년 호명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한 자발적 결사로 출범해 종단현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원각사 보우승가대 설립, 전물장병 위령제 및 군 위문법회 봉행 등 후진양성과 다양한 대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종단발전의 현실을 밝혔다.

스님은 "새 집행부가 출범해 전 집행부의 잘못된 일들을 조사하고 있으니 명명백백히 밝혀 질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총무원을 중심

으로 힘을 모아 종단 위상 제고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혹독한 겨울 동장군도 결국은 남쪽 훈풍 한 자락에 물러가는 법"이라며 "종책오류를 지적해 불난 세력으로 매도됐지만 정법구현, 하심화합을 통해 지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4대회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보우승가회 임원진과 총무원 부원장 법현, 화경 스님, 법규위원장 혜공 스님, 교육위원장 수암 스님, 강원총무원장 백운 스님, 제주총무원장 복해 스님, 서울북부총무원장 호명 스님, 인천총무원장 흥제 스님, 제주조정실장 도각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혜철 충청지사장

## 한국불교법사대학, 100명에 법사품수



100여 명의 법사들이 21일 열린 법사법위 품수식에서 포교를 통한 불교 증흥을 발원하고 있다.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21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8회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

다. 이날 품수식에서는 1년 과정의 법사와 2년 과정의 대법사 100명이 법위를 수여받았다.

## 남이농협, 석문사 미혼모센터 등 도와

충북 청원군 남이농협(조합장 이길웅)은 2월 24일 청원 석문사 미혼모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과 독거노인가구에 10Kg 420포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

은 독실한 불자인 이길웅 조합장과 농협 직원들의 신심이 의해 관내 농협주유소 준공식에서 모은 찬조금 800만원이 사용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 대 불교 조계종 창종 선포문

근계사하, 공유컨대 교조 석가모니의 유지를 받들어 종조 신라 원광국사께서 한국 조계종맥의 정통성을 계승하사 가섭영역에서 종당(宗幢)을 선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列開)하고 5교과가 병립하여 선교포교학이 광역에 광선 유포하더니 고려의 성쇠와 함께 교세가 부진을 거듭하여 태고 보우국사께서 계종을 포섭하사 조계의 종맥을 근대에 고양시켜준다. 본종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하고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며 제가 대중들이 삼보를 외호하고 각자의 수행에 전념하는 새로운 풍토를 선양하고자 한다. 본종은 석가모니의 자각각타, 견성성불, 심외무불을 사회속에 회향하여 종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가풍을 진작코자 한다. 본종단은 천재대도의 세 운세를 맞아 부처님의 선지식을 통해 불교 잠재력을 결집하며 한국불교의 체질을 새롭게 유신하고 재구축하여 한국불교의 정상성을 되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범종단 단체 및 전국사암 대표들이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동체대비를 실현하고 각 지역에 내재된 불교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다문화화를 포용해 미래 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여 전국 불교단체지도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동반자 사회운동을 제창하고자 종단을 창종하고자 한다. 종도 대중은 불조의 혜명을 광선유포하고 본뜻을 받들어 실천 수행하여 이땅의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삼라만상 법계에 유전케 하라. 삼가 불조의 가호아래 우리 조계법계 만대의 향상일로와 무궁무진한 부사의의 변역을 기원한다.

불기 2554년 2월 15일

### - 대불교 조계종 창종위원회 -

- 오봉 남장 보성 보업 진산 향천 천호 지공 성안 대원 해심
- 진성 해능 무공 석보 지호 성희 청허 해안 청해 해명